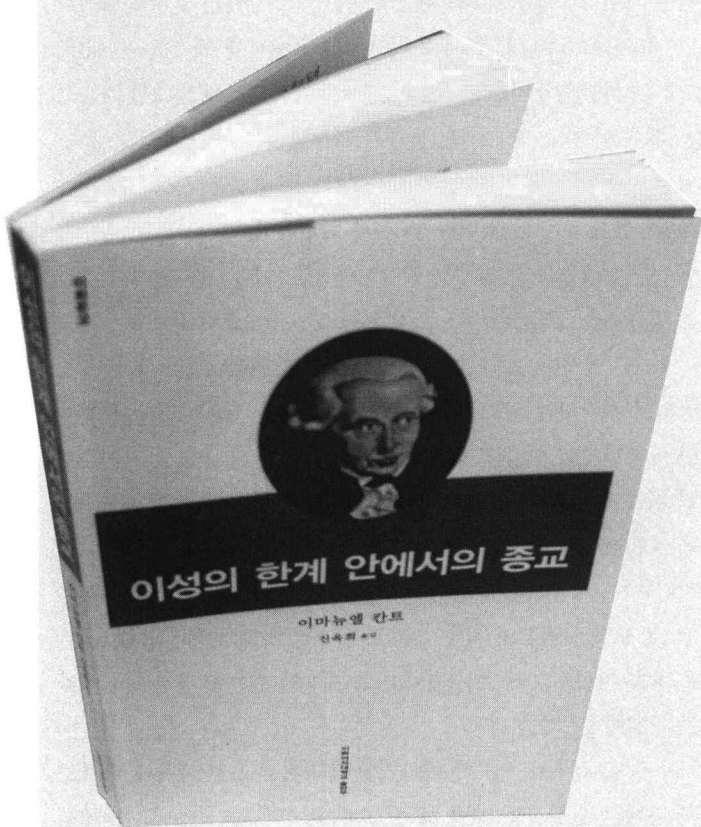


계몽주의에 도전한 실존 철학, “스스로 생각하라”

21세기에 보내는 칸트의 서한

글_ 표정훈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임마누엘 칸트 지음 | 신옥희 옮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320쪽 | 값 10,000원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기(文家)'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책은 나뉘는 운명을 지닌다》 《탐서주의자의 책》 《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 《고대문명의 환경사》 《진영철의 주자강의》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칸트입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이지요. 기독교 천사의 이름인데, 신앙심이 무척 깊었던 부모님이 과분하게 제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정말 어지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7년 전쟁,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의 광풍이 불어오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잘 견디어 나갔습니다. 저는 160센티미터가 될까말까 한 키에 어린아이 같은 몸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저를 가리켜서 19세기에 '가장 우뚝 솟은 지성'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제가 살던 곳의 제 이웃들에게 저는 '살아 있는 시계'였습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저는 쾨니히스베르크의 참피나무 아래로 난 길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이웃들은 '저기 우리의 살아 있는 시계가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시계를 정확히 3시 30분에 맞추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매일 제가 참피나무 거리에 발을 들여놓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 이웃들은 이 쭉글쭉글하고 조그마한 노총각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일과를 보낸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시인 하이네 선생만은 저의 그런 단조로운 일상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제 생각 안의 거대한 폭풍 사이의 대비를 잘 꿰뚫어 보시더군요. 하이네 선생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칸트라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삶과, 세계를 뒤흔드는 사상 사이의 이 날카로운 대비를 보라! 만일 쾨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이 그의 생각의 본 모습과 위대성을 조금이라도 짐작했다라면, 그들은 자기 도시의 사형집행인에게서보다 칸트가 자기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훨씬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사실 사형집행인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뿐이지요. 하지만 저의 철학은 전통적인 신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뒤흔들 뿐더러,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마저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이네 선생의 저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저 스스로도 옳은 것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저의 조상은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독일로 이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가난하셨지만 정말 깊은 신앙심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가죽 수공일을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정말 엄격하고 신앙심 깊은 분이셨습니다. 저의 학교생활도 가정

생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독교의 교리와 의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건하고 엄격한 신앙적 분위기에 좀 질려 버렸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서나 조금씩 그런 법이 아니던가요? 반항적이고, 어른들이 절대시하며 자신들에게 강요하는 가치관에 반발도 하고, 회의와 의문에 휩싸이기도 하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하튼 저는 어른이 된 이후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는 무척 죄송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평생 동안 단순히 인간적인 것 이상의 그 어떤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향한 갈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감화력과 어릴 적의 교육은 일생을 좌우하나 봅니다.

후대 사람들은 저의 철학을 가리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라고 하는 모양이더군요. 제가 실체로서의 신을 중심으로 한 중세 이후 서양 주류 형이상학 전통에서 벗어나, 인식 주체, 행위 주체의 자발적인 인식 능력과 실천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의 철학을 가리켜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 즉 천체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의 정점에 교황권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질서에 가해진 철학적 결정타였다고 평가하는 셈이지요.

저는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Sapere Aude는 말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대를 특징짓는 계몽주의 사조는, 신, 사제, 성서,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 등, 그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던 주류 사회 및 사상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제 철학을 근대적 시민 주체의 철학적 자기표현이라고 본다면, 제 저서를 금서목록에 올린 교황청의 조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겠지요. 칼 마르크스라는 철학자가 제 철학을 '프랑스 혁명에 관한 독일적 이론'이라 일컫고, 엥겔스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정치 혁명은 독일의 철학 혁명을 수반했다. 칸트는 낡은 형이상학 체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철학 혁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지요.

신앙에 관한 한 저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이 믿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건하고 순수한 도덕만이 기독교 복음서가 담고 있는 참된 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저에게 미친 영향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1793년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를 출간하면서 종교적 신

념을 표현할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지나치게 합리주의적인 태도로 종교에 접근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결국 저는 종교적인 주제에 관한 강의나 저술을 금지당했습니다.

제가 프로이센 당국의 이런 조치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내면적 확신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신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린 덕분인지 1797년부터 저는 다시 강의와 저술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저의 생각은 당시의 지배적인 관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하지 않는가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한다는 것을 예시하는 게 중요할 뿐, 예수를 인간의 궁극적인 행위 모델로 삼기 위해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따위를 경험적으로 예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겁니다.

기적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신앙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는 분명한 징표를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책했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는 애초부터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요구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주류 기독교계나 당국자들의 눈에는 불온한 것으로 보이기 딱 알맞았습니다. 사실 책제목부터 그렇지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라니요.

다시 어머님을 떠올려 봅니다. 스스로에게는 더할 수 없이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했던 나의 어머니. 신앙을 말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기에 힘썼던 나의 어머니. 그런 나의 어머니에게 제 책 내용을 설명해 드려도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 분이기애, 아들의 진심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1897년에 세상을 떠나 어머니 곁으로 갔고, 제가 믿었던 대로 어머니가 저를 깊이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인이 입가에 흘려준 포도주를 맛보고 '좋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먼 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만나는 순간, 다시 한 번 저도 모르게 '좋다' 는 말을 했습니다. ☞